

손흥민 “난 행복한 사람”

올 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 리그(EPL) 득점 2위를 달리고 있는 손흥민(30·사진)이 소속팀 토트넘 홋스퍼 올해의 선수 3관왕에 올랐다.

토트넘 구단은 15일(현지시간) 구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손흥민이 ‘토트넘의 올해의 선수(One Tottenham Player of the Season)’ ‘토트넘 주니어 팬이 뽑은 올해의 선수(One Tottenham Junior Members’ Player of the Season)’ ‘공식 서포터스가 뽑은 올해의 선수(Official Supporters’ Clubs Player of the Season)’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손흥민은 2018~2019시즌, 2019~2020시즌에 이어 개인 통산 세 번째 토트넘 올해의 선수 3관왕을 차지했다.

손흥민은 이날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치러진 변리와의 EPL 홈 경기를 마친 뒤 열린 시상식에서 “이 경기장에서 땀 수 있는 나는 세

토트넘 올해의 선수 3관왕 EPL ‘올해의 선수’에도 올라

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경기에서 이겨서 기쁘고 이 상을 받아 행복하다. 나의 꿈이 이뤄졌다. 이곳에서 토트넘의 일원으로 멋진 팬들을 위해 뛰는 건 놀라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EPL에서 21골로 득점 랭킹 2위에 올라 있다. 선두인 모하메드 살라(22골·리버풀)와는 단 한 골 차다.

또 토트넘 선수로는 유일하게 2021~2022 시즌 EPL 올해의 선수 8명 후보에도 이름을 올렸다.

한편 토트넘 ‘올해의 골’은 스테번 베르흐베인에게 돌아갔다.

베르흐베인이 1월 레스터시티와의 EPL 17라운드 순연 경기에서 후반 추가시간에 넣은 역전 결승골이 올해의 골로 선정됐다.

스카이텔레비전/뉴스



지소연, 첼시 위민 고별전 FA컵 우승으로 유종의 미

맨시티 위민과 연장접전서 3-2 승리, 2관왕 등극

지소연이 잉글랜드 무대 마지막 경기에서 유종의 미를 거뒀다. 소속팀 첼시 위민이 올 시즌 잉글랜드축구협회(FA) 위민스 슈퍼리그(WSL) 우승에 이어 여자 FA컵까지 차지하며 2관왕에 올랐다.

첼시 위민은 15일(한국시간) 영국 런던 웹블리스타디움에서 열린 맨체스터 시티 위민과의 2021~22 여자 FA컵 결승전에서 연장 전반 9분 샘 커의 결승골로 3-2로 이겼다.

이로써 첼시 위민은 FAWSL 우승에 이어 여자 FA컵 정상까지 오르며 더블을 달성했다. 특히 첼시 위민은 지난 시즌에 이어 여자 FA컵 2연패와 동시에 통산 대회 네 번째 정상에 올랐다.

경기는 맨시티 위민에 다소 유리하게 진행됐다. 경기 내내 맨시티 위민은 6-4 정도의 볼 점유율 우위를 보였고 연장 전후반까지 120분 동안 23개의 슈팅을 기록하며 첼시 위민(9개)을 압도했다.

하지만 첼시 위민은 결정력에서 강했다. 선제골도 첼시 위민이 넣었다. 전반 33분 밀리 브라이트가 오른쪽에서 올려 준 크로스를 커가 머리로 받아 넣으며 먼저 골문을 열었다.

맨시티 위민도 가만있지 않았다. 전반 42분 카디자 쇼가 내준 패스를 받은 로렌 햄

프가 첼시 위민 왼쪽 페널티지역을 허문 뒤 슈팅으로 연결, 골망을 흔들었다.

전반을 1-1 동점으로 마친 가운데 첼시 위민은 후반 들어 여러 차례 맨시티 위민의 위협적인 공세에 시달렸지만 육탄 방어로 잘 막아낸 뒤 다시 앞서가는 골을 만들어냈다.

후반 18분 베타니 잉글랜드가 내준 공을 에린 커트버트가 오른발 중거리 슈팅으로 연결했고 공은 크로스바를 맞고 골라인을 넘었다.

지소연이 잉글랜드를 대신해 후반 24분 출전한 가운데 첼시 위민도 우승을 눈앞에 두는 듯 보였지만 맨시티 위민의 파상공세에 끝내 골문을 열어 주고 말았다. 후반 44분 알렉스 그린우드도 길게 내준 공을 헤일리 라소가 잡아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슈팅을 날렸고 공이 그대로 골문을 통과했다.

힘이 빠질 수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첼시 위민은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었고 연장 전반 9분 커의 단독 돌파에 이은 슈팅으로 결승골을 뽑아냈다.

지소연이 연장 후반 14분 교체 아웃된 가운데 첼시 위민은 끝까지 맨시티 위민의 공격을 막아내며 여자 FA컵 우승 트로피의 주인이 됐다.

지소연은 자신의 첼시 위민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어 소속팀을 여자 FA컵 우승으로 이끌며 8년의 잉글랜드 생활을 마감했다. 지소연은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지소연이 잉글랜드 무대 마지막 경기에서 유종의 미를 거뒀다. 소속팀 첼시 위민이 올 시즌 잉글랜드축구협회(FA) 위민스 슈퍼리그(WSL) 우승에 이어 여자 FA컵까지 차지하며 2관왕에 올랐다. 첼시 위민 페이스북 캡처

이경훈, 한국인 첫 PGA 타이틀 방어 성공... 통산 2승째

AT&T 바이런 넬슨 역전 우승 26언더 262타, 스피스와 1타 차

이경훈(CJ대한통운·사진)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AT&T 바이런 넬슨(총상금 910만 달러)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이경훈은 16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매키니의 TPC 크레이그 랜치(파 72·7468야드)에서 열린 대회 4라운드에서 9언더파 63타를 쳤다.

최종합계 26언더파 262타를 기록한 이경훈은 조던 스피스(미국)를 1타 차로 따돌리고 트로피에 입을 맞췄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생애 첫 승의 감격을 누린 이경훈은 타이틀 방어 성공으로 2승째를 신고했다. 한국 선수가 PGA 투어 같은 대회에서 2년 연속 정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경훈은 디펜딩 챔피언의 칭호와 함께



163만8000달러(약 21억원)라는 거액의 우승 상금까지 손에 넣었다.

이경훈의 두 번째 쾌거로 한국인 PGA 투어 총 우승 기록은 '21'로 늘었다. 지금

의 한국 선수 미국행 러시를 가능케 한 '말행' 최경주가 8승으로 가장 많고 김시우(3승), 임성재, 양용은, 이경훈, 배상문(이상 2승) 등이 다승자로 이름을 남겼다.

짜릿한 뒤집기였다. 이경훈은 3라운드까지 단독 선두 세바스티안 무노스(콜롬비아)에게 4타 뒤진 공동 6위에 자리했다. 이 정도라도 충분히 좋은 성적이지만, 역전 우승으로 가는 길이 그리 순탄해 보이지 않았다.

최종 라운드에 나선 이경훈은 초반부터 무서운 기세로 타수를 줄였다. 2번과 3번홀 연속 버디로 기세를 올리더니 5번과 6번홀에서도 버디를 홀킵에 떨어뜨렸다. 파5인 9번홀에서도 세 번째 샷을 홀킵 1m 옆에 붙이면서 전반에만 5개의 버디를 속아 냈다.

후반에도 이경훈의 상승세는 꺾이지 않았다. 12번홀 이글은 흐름을 가져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이 이글로 이경훈은 공동 선두 그룹을 1타 차로 밀어내고 단독 선두를 꿰찼다. 13번홀에서도 버디를 보냈다.

17번홀 첫 보기 위기에 몰렸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절묘한 퍼트로 파세이브에 성공한 이경훈은 주먹을 불끈 쥐며 기쁨을 표현했다.

18번홀에서는 이글 퍼트가 홀 바로 앞에서 멈췄지만 버디를 추가하면서 역전 드라마를 완성했다.

이경훈은 우승 직후 국내 취재진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디펜딩 챔피언이 돼 꿈만 같다. 기분이 좋다”고 감격스러워했다. 스피스는 이경훈에게 1타 뒤진 2위에 머물렀고 3라운드까지 1위를 지키던 무노스는 경쟁자들에게 추격을 허용해 마쓰야마와 공동 3위로 대회를 마쳤다.

WANNA RISE?

ALCOBAÇA Stream DOUBLE WAVE



WANNA SPIN?

Ray SX-ZERO



RomaRo

(주)유니스골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189-5 인스코빌딩 문의전화 031)726-0085